양반을 향한 긴 여정*
— 조선 후기 어느 하천민 가계의 성장

권내현

1. 머리말

전근대 한국 사회는 비교적 엄격한 신분질서를 통해 사회체제를 유지했다. 동아시아 3국 가운데 일본만큼 강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비해 한국은 신분 간 이동이 훨씬 어려웠고 하층 신분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심했다. 지배 신분 집단은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지만 하천민들은 그러한 규제에 맞서며 사회적 성장을 도모했다.[1]

조선의 최고 신분층은 중앙과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양반이다. 그들은 지배의 또 다른 한 축, 즉 행정 실무를 담당한 아전·향리들을 중간 신분으로 격하시켰다. 또한 자신들의 서자를 차별하여 양반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정치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양반층 내부의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그들 신분층의 외연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했다.

* 이 글은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양반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토지와 노비의 소유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천민에 속한 노비들은 양반가의 가사와 토지 경영에 참여하여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그들은 양반에 예속된 대가로 근근이 살아갈 수는 있었지만 신분적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욕망도 매우 강했다. 때때로 그들은 합법·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노비 신분에서 해방된 뒤 평민의 지위를 얻기도 했다.

국가 방어와 재정의 원천인 평민들 역시 신분질서에 순응하지만은 않았다. 그들은 자신에게 가해진 사회적 차별과 부세 부담의 경감을 위해 양반이 되고 싶어 했다.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어서 때로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진행되었고, 혹 형식적으로 양반의 명칭을 얻었다고 해도 사회적 대우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하지만 하천민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은 간단없이 진행되었고, 이는 신분제 사회에 미미하지만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천민이 신분질서에 맞서는 방식으로는 최상층 양반의 특권을 직접 해체하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위로부터 혹은 아래로부터 사회체제의 혁명적 전환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자신들의 신분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것도 조선 후기 어느 하천민 가계가 오랜 기간 동안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근대 이후 한국 사회 구성원의 상당수는 사실상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던 인물들 또는 그들의 후손이다. 근대 이후 많은 사람은 경제력이나 학력을 바탕으로 계층 상승이라는 새로운 사다리에 올라타기 위해 노력하면서[2] 자신들의 윗세대가 걸었던 길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도 그들과 같은, 어쩌면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며 사회적 성장을 이루어나갔던 것이다.

2. 자료와 지역 특성

전근대 한국 사회 하천민 집단의 구체적인 삶을 다루려는 많은 노력은 현존하는 자료의 부족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조선의 하천민들 역시 남긴 기록이 거의 없었다. 더구나 국가의 공식 기록이나 양반들의 사적인 기록에서 하천민들의 일상적인 삶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국가나 양반 지배층의 기록을 통해 하천민의 삶을 조각퍼즐 맞추듯이 조금씩 복원해나갈 수밖에 없다.

단순한 내용의 반복적인 조합임에도 조선 사회에서 하천민에 관한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물 중의 하나는 호적이다. 3년마다 작성되었던 호적에는 개별 호마다 대표자를 비롯하여 그의 가족, 예속인들의 이름, 나이, 직역, 조상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3] 그 기재 내용은 단순하고 무미건조하며 실존 인물의 상당수가 빠져 있는 한계도 있지만, 하천민 가계의 내력을 연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이만한 것이 없다.

현존하는 호적은 소수에 불과한데, 이 글에서 다루는 단성 지역은 1606년부터 1888년에 걸쳐 모두 33개 연도분의 호적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이들 호적에서 한 하천민 가계의 구성원들을 모두 추적하여 그 성장 과정을 복원해보고자 했다. 이는 한 인물의 삶을 구체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랜 기간에 걸쳐 자료상에 부분적인 흔적만 남긴 한 가계의 성장 내력을 조망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민 가계가 여러 세대를 거치며 신분적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노력과 지배 신분층의 일원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욕망의 단편을 살펴보는 데는 유용할 것이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인 가계 구성원들이 살았던 지역은 오늘날 한국의 남부 내륙 지역에 속한 곳이다. 현재 경상남도 산청군의 일부인 이곳은 당시 단성현으로 불린 곳으로, 인구 규모가 작은 전형적인 농촌에 해당했다. 몇몇 양반 집단은 여러 곳에 동성촌락을 형성해 집단으로 거주했고 그들의 서원이나 사우도 발달해 있었다. 이 지역의 하천민 가운데는 철 생산에 동원된 수공업자들도 있었으나, 대개는 양반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이거나 그들에게 예속된 노비들이었다.

조선시대 단성현은 8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글에서 다루는 가계 구성원들은 그 가운데 하나인 도산면에 주로 거주했다. 도산면에는 밀양 박씨와 남원 양씨가 대표적인 양반 성관姓貫으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고,[4] 이 글의 분석 대상 가계인 김해 김씨는 대다수가 하천민 신분에 속했다. 밀양 박씨와 남원 양씨는 가계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에 기반을 두고 동성촌락을 형성해갔지만 김해 김씨 구성원들의 경우에는 집단적인 거주 촌락을 만들기 전에 그들 개개인의 사회적 성장과 신분 상승이 더욱 절실한 문제였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어느 김해 김씨 가계 구성원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신분 해방의 첫걸음

노비로부터 해방

조선시대 평민은 대개 농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했으며 국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세 부담을 지고 있었다. 호적에는 평민의 생계 방편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가 부담해야 할 군역의 종류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

게 기록했다. 그것은 호적의 주된 작성 목적이 군역과 같은 국역의 파악에 있었기 때문이다.[5] 여기에서 분석하려는 대상도 군역 부담을 지고 있는 평범한 평민 가계이다.[6]

이 글에서 우선 주목하는 인물은 1717년 단성현 도산면 호적에 등장하는 김흥발金興發이라는 사람이다. 당시 그는 나이 49세로 부인과 두 명의 아들을 둔 가장이었으며, 본관은 김해였다. 그는 중앙의 군사기구인 어영청에 소속되어 군역의 의무를 부담했던 전형적인 평민이었다. 부인 변소사도 평민 여성을 가리키는 '소사召史'라는 명칭이 붙어 있었다.[7] 그런데 이들 부부의 가계가 대대로 평민 신분을 유지해왔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호적에는 흥발의 4조, 즉 아버지와 조부, 증조부, 그리고 외조부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의 아버지 수봉守奉의 직역은 납속통정대부로서 국가에 상당량의 곡식을 바치고 정3품의 관품을 얻은 인물이었다. 이때의 관품은 실제의 관직과 거리가 먼 명예를 얻는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만큼 그의 경제력이 넉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1717년 호적이 만들어질 때 사망했다. 그런데 수봉을 제외하면 흥발의 나머지 조상들은 이름만 나타날 뿐, 평민이었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군역의 명칭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흥발이 조상들의 직역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호적 작성자의 실수 때문에 빚어진 일로 보기는 어렵다. 1717년 김흥발의 두 형제 호적에서도 아버지 수봉을 제외한 조상들의 직역이 빠져 있는데, 1720년 이후로는 이들에게 모두 정병이라는 군역 명칭이 직역으로 기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흥발의 아버지 수봉이 1717년 사망할 때까지 그의 가계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의 단서는 흥발의 부인 변소사의 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변소사의 조부와 증조부도 직역이 분명하지 않은데, 외조부가 사노비인 것은 확실하

다. 조선에서는 대개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노비이면 자식들은 모두 노비가 되었기 때문에 외조부가 사노비라면 변소사의 어머니도 노비였다는 말이 된다. 만일 변소사의 어머니가 속량贖良되지 않았다면 변소사 역시 원래 노비 출신이었을 확률이 높다. 홍발이 노비 내력이 있는 가계의 여성과 결혼했고 그 자신의 가계 역시 모호한 부분이 있는 이상 1717년 이전의 호적에서 홍발의 가계를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1717년 이전의 호적으로는 1606년과 1678년의 것이 있다. 1606년에는 홍발의 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1678년 호적에서도 홍발 자신은 물론 아버지 김수봉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1678년 도산면 호적에는 성씨가 없는 사노비 수봉守奉이 나타난다. 김수봉과 한자 이름이 같고 성씨는 없지만, 본관은 김해로 역시 김수봉과 같다. 이때의 수봉과 훗날의 김수봉은 과연 같은 인물인가.

이름과 본관이 같다는 점 외에 두 인물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근거를 찾아보자. 홍발의 외조부는 곧 수봉에게 장인인데, 1717년 호적에서 그의 이름은 이금금李今金이었다. 1678년 수봉의 처는 사노비로서, 수봉에게는 장인인 그녀의 아버지는 금금이金金伊였다. 금금이의 아버지는 이생李生인데, 이는 이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금이는 이금금이가 되므로 1717년의 이금금과 동일 인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1678년 노비 수봉에게는 금학金鶴이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1717년 호적에서 김수봉의 아들로 홍발과 갓동이乭同伊, 그리고 학鶴 등 세 명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학이란 인물은 성을 붙이면 김학이 된다. 이때 김학은 노비 수봉의 아들 금학과 동일 인물로 보인다. 수봉과 금학이 김金이라는 성씨를 사용하면서, 김이 두 번 반복되는 금학의 경우 한 글자를 떼어 버리고 학을 이름으로 사용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8]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은 노비 수봉과 평민 김수봉이 같은 인물임을 입증해준다. 따라서 수봉은 1678년 이후 1717년 사이에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었고 김이라는 성씨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한 양반의 소유 노비였던 수봉이 어떻게 노비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호적에는 개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혀 실마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김수봉의 직역은 납속통정대부였다. 이는 다시 말해 자연재해로 국가재정이 어려울 때 그가 많은 곡식을 납부하고 명예직을 얻을 만큼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노비들은 주인에게 신공을 바치는 틈틈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상업·수공업에 종사하여 재산을 늘려나갔다.[9] 이렇게 축적된 재산은 그들의 신분 상승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노비들이 주인에게 예속된 신분적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로 활용한 것은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는 불법적인 방법이었다. 다만 경제력이 있는 노비들은 주인이나 국가에 자신의 재산 일부를 바치고 합법적으로 평민이 되는 납속종량納粟從良의 방식을 택했다.[10] 실제로 김수봉이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포함되는 1681년과 1695년에 국가에서는 미곡을 받고 노비들의 신분을 평민으로 올려준 일이 있었다.[11]

흉년에 국가에 예속된 공노비들이 곡식을 바치고 면천을 원하는 경우, 그 처리는 비교적 용이했다. 하지만 개인이 소유권을 가진 사노비의 면천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국가가 사노비를 면천할 때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공노비를 대신 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었다. 김수봉이 국가에 곡식을 바치고 바로 면천이 되었는지, 혹은 주인에게 대가를 치르고 면천된 뒤 국가에 다시 곡식을 바치고 관품을 얻었

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국가에 많은 곡식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경제력을 지닌 노비였고, 이것이 신분 해방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다.

성씨의 획득

한국에서 성씨는 삼국시대 왕족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귀족을 거쳐 고려시대에는 일반 평민들도 대개 이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노비들도 점차 성씨를 획득해갔지만, 여전히 많은 노비는 이름 외에 성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았다. 이 글의 주인공인 수봉은 1678년 성 없이 본관만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다. 이 시기 대부분의 평민들은 성과 본관, 이름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노비 수봉이 평민이 되기 위해서는 성씨를 획득해야 했고, 면천하면서 마침내 김이라는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수봉은 성을 얻기 전에 이미 김해라고 하는 본관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많은 노비가 성과 본관을 모두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일부는 수봉과 같이 성이나 본관 중 하나가 호적에 기재되었다. 이는 모든 노비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도 성과 본관을 다 얻기 전에 이 중 하나를 먼저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2] 수봉이 살았던 도산면 주호들의 성관 실상을 통해 이를 확인해보자.

〈표 1〉은 도산면에서 성과 본관을 모두 가진 주호가 1678년 59%에서 1717년 74.3%로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본관만을 가진 이들의 비중은 크게 줄고, 성만을 가진 이들의 비중은 다소 상승했다. 이는 성관이 없던 이들이 먼저 본관, 다음에 성씨를 차례로 획득해나갔다고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일부는 그 반대의 과정을 거쳤고, 성씨를 얻으면서 본관이 일시적으로 탈락된 자도 있었다. 본관과 성씨를 차례로 얻은 수봉

〈표 1〉 도산면 주호들의 성관 실상 변화

연도	성+본관		성		본관		무 성관		합계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1678년	184	59.0	1	0.3	92	29.5	35	11.2	312
1717년	275	74.3	15	4.1	40	10.8	40	10.8	370

은 1717년 이전 노비 신분에서 벗어났다.

도산면의 주호 가운데 노비는 1678년 129명으로, 전체 312명의 41.3%에 해당했다. 그런데 1717년에는 노비 주호가 99명으로, 전체 370명 가운데 26.8%로 줄어들었다. 호적을 통해 신분 변동을 곧바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18세기 전반 노비 인구가 상당수 감소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노비 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비 주호가 성과 본관을 모두 사용하는 비중은 1678년 5.4%에서 1717년 18.2%로 늘어났다. 노비들의 일부는 수봉과 같이 신분을 상승시키며 성관을 획득했고, 일부는 아직 신분 상승은 이루지 못했지만 전 시기보다 성관을 많이 얻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노비들은 신분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성씨와 본관을 획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들이 어떤 성씨와 본관을 선택했을까 하는 점이다. 수봉이라는 인물에 한정할 경우 그가 김해 김씨와 어떠한 연관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우선 수봉의 직계 조상 가운데 김해 김씨가 있었을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의 조상 가운데 누군가가 김해 김씨 양반 출신이었고 그가 노비 첩과 관계해 얻은 자식과 그 후손들을 상상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이름만 가진 노비들이었겠지만 그 뿌리가 김해 김씨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시점에서 이를 드러냈을 수 있다. 실제 호적에서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인물들

〈표 2〉 본관만 존재하는 주호의 본관 명칭과 비중(도산면 1678, 1717년)

본관	1678년			1717년		
	주호 수	비중(%)	전체 순위	주호 수	비중(%)	전체 순위
진주	18	19.6	1	3	7.5	3
김해	11	12.0	2	10	25.0	1
단성	7	7.6	3	4	10.0	2
경주	7	7.6	3	3	7.5	3
전체	92	100		40	100	

이 종종 발견된다.

하지만 수봉의 직계에서 김해 김씨 인물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수봉은 노비였을 당시 그의 직계 조상의 이름들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그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난 뒤에야 조상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호적에 기록되었는데, 이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자신과 혈연적 연관성이 없는 김해 김씨를 자의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왜 하필 김해 김씨였을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도산면 김해 김씨의 사회적 위상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1678년과 1717년 호적에서 성씨 없이 본관만 기재되어 있는 주호들의 본관을 살펴보자. 이 시기 성씨 없는 본관의 총 개수는 41개이며, 그 가운데 구성원 수가 많은 일부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는 성씨 없이 본관만 존재했던 노비들이 어떤 본관을 선호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 나타나는 본관은 모두 경상도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중에 단성은 도산면이 위치한 곳이고, 진주는 바로 그와 이웃한 지

〈표 3〉 성씨와 본관을 모두 갖춘 주호의 성관별 비중(도산면 1678, 1717년)

성관	1678년			1717년		
	주호 수	비중(%)	전체 순위	주호 수	비중(%)	전체 순위
김해 김	22	12.0	1	46	16.7	1
안동 김	18	9.8	2	9	3.3	7
밀양 박	18	9.8	3	29	10.5	2
남원 양	14	7.6	4	22	8.0	3
진주 유	7	3.8	5	10	3.6	6
진주 강	4	2.2	9	13	4.7	4
합천 이	5	2.7	6	12	4.4	5
전체	184	100		275	100	

역이었다. 또한 김해와 경주는 이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당시는 물론 오늘날까지 매우 많은 지역 명칭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대개 노비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인구수가 많아 자신들에게 익숙한 지명을 본관으로 선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1678년 수봉이 사용했던 김해라는 본관은 당시에는 본관만 존재한 주호의 12%를 차지해 전체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그런데 1717년에는 그 비중이 25%로 높아지면서 주호의 수도 가장 많았다. 성씨 없는 노비들이 본관을 정하면서 수봉과 같이 김해로 결정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해라는 본관은 당시 이 지역의 노비들이 혈연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가장 선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에는 성씨와 본관을 모두 가진 이들 가운데 수적 비중이 높은 일부를 살펴보자. 〈표 3〉은 1678년과 1717년 도산면의 주호 가운데 김해 김씨

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수봉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김해 김씨를 자신의 성관으로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수봉과 같은 노비들은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흔한 본관을 자신의 본관으로 정했다. 당시 이 지역에서 김해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모두 여섯 개였는데,[13] 이 가운데 인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김씨였다. 따라서 김해를 본관으로 정한 이들은 다시 가장 흔한 김씨를 자신의 성씨로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1678년에 비해 1717년의 김해 김씨 수와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이 때문이다.

김해 김씨 다음으로 비교적 구성원 수가 많은 성관으로는 밀양 박씨와 남원 양씨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수는 많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율은 미미한 편이다. 또한 본관만 가진 주호들 가운데에서 밀양이나 남원이 차지한 비중도 높지 않아 〈표 2〉에는 정리하지도 못했다. 이는 밀양 박씨와 남원 양씨가 도산면을 지배한 대표적인 양반 성관이었다는 점과 관련 있다. 적어도 18세기 전반까지 혈연적 연관성 없이 새롭게 성관을 획득했던 이들이 지역의 양반 성관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지역의 김해 김씨가 과연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수봉이 남원 양씨와 같은 양반 성관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김해 김씨 구성원들은 전혀 다른 신분층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4〉는 김해 김씨 가운데 양반이나 중인은 단 1호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717년에는 9명의 주호가 노비였고, 37명의 평민 가운데 원래 노비였던 이들도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이 지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김해 김씨 구성원들이 모두 하천민 출신이었다는 점, 이로 인해 노비들이 이 성관을 선호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비

〈표 4〉 김해 김씨 주호의 신분 구성(도산면 1678, 1717년)

신분	1678년	1717년
양반	0	0
중인	0	0
평민	22	37
노비	0	9
전체	22	46

수봉 역시 흔하면서도 신분적 장벽이 높지 않았던 김해 김씨를 자신의 성관으로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4. 양반을 향한 긴 여정

직역의 상승 과정

김수봉은 18세기 초 이미 노비 신분에서 벗어났고 성씨도 획득했다. 그의 후손들은 이로부터 노비가 아닌 어엿한 평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노비로부터의 해방이란 그와 가족의 삶을 얽어맸던 소유주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평민이 된 그의 후손들은 이제 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력을 스스로 확보해야 했고 국가의 다양한 부세 수취에도 호응해야 했다.

김수봉의 후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력을 확보했으며 국가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지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 호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직역의 명칭과 그 변화일 뿐이다. 그러나 직역 명칭의 변화 과정을

〈표 5〉 김수봉 가계 구성원의 직역 변화

관계		성명	1717	1729	1732	1750	1759	1762	1780	1789	1825	1831	1849	1858	1867
본인		김수봉													
아들	A	김홍발	어영보	금위보		가선대부									
	B	김 학	금위보	어영군											
	C	김홍창	역보	포보	납속절충	납속절충									
손자	A1	김소명		어영보	어영보	봉수군	업무	업무	서사낭청						
	B1	김해발	역보	어영군		어영군	전력부위	어영군							
	C1	김세우	원생	원생	원생	지곡관	업무	업무							
증손자	A2	김명재				마군		업무	서사낭청	서사낭청					
	B2	김명갑				수군	업무	업무							
	C2	김광오					어영보	업유	유학	업무					
고손자	A3	김성종								업무	한량	한량			
	A3	김종원										한량	유학		
	C3	김중채						업유	업무	업무					
5세손	A4	김성려										교생	유학		
	A4	김성곤										원생	유학	유학	
	A4	김재곤												유학	
6세손	A5	김익흠										약보	한량	유학	유학
	A5	김조흠											유학	유학	
	A5	김재흠											유학		

* A1은 A인 김홍발의 아들, A2는 손자, A3은 증손자란 의미임.
** ▢는 중간층의 직역, ▢는 상층의 직역을 의미함.

보면 김수봉의 후손들이 사회적 지위 상승과 경제적인 부담의 경감을 위해 얼마나 장기간에 걸쳐 노력을 기울였는지 엿볼 수 있다.

〈표 5〉는 김수봉 가계 구성원 일부의 직역 변화를 추적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김수봉의 세 아들은 어영청이나 금위영과 같은 군사기구에 소속되

어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1750년 김흥발은 가선대부라고 하는 명예직을 얻었는데, 당시 그의 나이가 79세로 장수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혹은 그의 경제력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의 동생 흥창이 55세였던 1732년부터 납속절충장군이란 직역을 사용한 점은 분명하게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 수봉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곡식을 바치고 정3품에 해당하는 명예직을 얻었던 것이다. 이로써 흥창은 평민들이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군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흥창이 국가에 별도로 곡식을 납부하고 직역이 상승된 것은 그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 비교적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실제 그는 한두 명의 노비를 줄곧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들 세우를 일찍부터 서원의 원생으로 등록시킬 수 있었다. 원생이 되었다고 해서 신분이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고된 군역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부담을 질 수는 있었다.

18세기 전반 김수봉의 아들 중에는 당시 일반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경제력을 활용해 군역에서 벗어나거나 가벼운 부담을 지려고 노력했던 이들이 있었고,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이는 일차적으로 군역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켜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수봉의 손자들 역시 이러한 노력을 지속했다. 호적에 한 차례라도 이름이 나타나는 수봉의 손자들은 모두 12명인데, 그 가운데 등장 빈도가 높고 직역이 중간층의 것으로 상승한 이는 모두 4명이었다. 전체의 1/3에서 직역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세우를 제외하면 〈표 5〉에서 드러나듯이 그 시기는 모두 18세기 후반이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평민 가운데 직역 상승자가 늘어나면서 기존 직역

체계에 변동이 생긴다.[14] 이는 부세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직역 상승자가 군역에서 곧바로 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봉의 손자들에게서 확인되듯이 평민 구성원의 일부가 직역 상승을 경험하고, 이것이 이후 상층의 직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실제로 군역 부담이 경감되었거나 혹은 군역 부담과의 연관성 여부를 떠나 직역 상승이 가능한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세기 후반에 주로 활동한 수봉의 증손자들도 절반에 가까운 구성원들의 직역이 이 시기에 중간층의 것으로 상승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김광오이다. 그는 평민 군역에서 1762년 중간층의 업유로, 다시 1780년에는 유학이라는 상층 직역으로 상승했다. 17세기까지 대부분 양반들이 독점했던 유학이란 직역을 수봉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획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의 부인에 대한 호칭도 이소사李召史에서 이성李姓, 다시 이씨李氏로 점차 상승했다.

김광오의 직역 상승도 그가 최소 두 명의 노비를, 그의 아버지가 네 명 이상의 노비를 소유했던 여건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유학이란 직역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 다음 호적이 만들어진 1783년 그의 직역은 중간층의 교생으로 강등되었고, 이후 여생을 마칠 때까지 다시는 유학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평민들의 중간층이나 상층으로의 직역 상승은 점차 확대되고 있었으나, 상층의 유학이란 직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컸던 것이다.

다음 세대인 수봉의 고손자들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활동했다. 이들의 절대 다수는 호적에 처음 나타날 때부터 중간층의 직역을 가지고 있었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층의 직역으로 상승했다. 김수봉

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의 어느 시점에 노비에서 해방되고 약 한 세기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의 후손 대다수는 평민의 군역이 아닌 중간층의 직역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유학이란 상층의 직역으로 한 단계 더 상승한 이는 김종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김수봉의 후손들이 본격적으로 유학을 칭하기 시작한 것은 1831년에서 1867년 사이에 등장하는 그의 5세손과 6세손 단계에서였다. 호적 기록의 엄격성이 상당 부분 파괴되었던 19세기에는 기재된 인물의 수가 많지 않아 직역이 기재된 김수봉의 5세손은 4명, 6세손은 5명 정도만 확인된다.[16] 이들은 1명씩을 제외하면 모두 유학을 칭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대개 19세기 중엽부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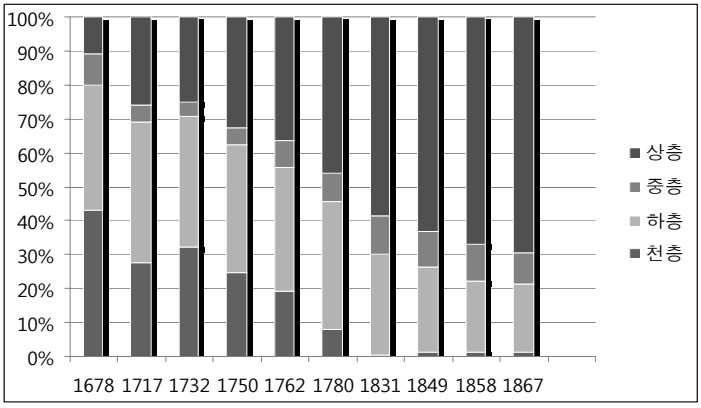
김수봉의 후손들이 대개 중간층의 직역을 획득한 뒤 다시 수십 년이 지나서야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유학이란 호칭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수봉이 노비에서 해방되고 약 2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들 가계의 이러한 성장은 얼마나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 의문에 대한 일종의 해답을 찾기 위해 수봉의 후손들이 거주했던 도산면의 남성 주호 직역을 분석해보았다.

〈표 6〉에서 우선 남성 주호의 합계, 즉 여성 주호를 제외한 전체 호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18세기 중엽 이후 큰 변동은 없다. 이는 일정한 호수를 유지하려 했던 국가의 호구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실제 호구수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호적에는 많은 호구가 누락되었고 부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력을 갖춘 호를 중심으로 등재가 이루어졌다.[17] 따라서 김수봉의 후손도 이러한 여건을 가진 자들이 주로 호적에 나타나고 직역 상승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6〉과 그래프는 천층인 노비의 수와 비중이 급격히 감소했

〈표 6〉 도산면 남성 주호의 직역 구분과 수, 비중(1678~1867)

	1678	1717	1732	1750	1762	1780	1831	1849	1858	1867
상층	30	89	92	131	144	176	258	276	292	286
중층	26	16	15	20	32	32	51	45	48	38
하층	103	142	141	153	143	144	131	110	92	82
천층	121	94	117	99	76	31	2	5	5	6
불명	2	7	25	7	17	55	7	15	15	13
합계	282	348	390	410	412	438	449	451	452	425



음을 보여준다.[18] 노비는 18세기 말 급감한 이래 19세기에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봉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사이에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었으므로 비교적 다른 노비들보다 신분 해방의 시점이 빨랐다고 할 수 있다. 평민 군역자가 된 수봉의 후손들은 이제 직역 상승을 통해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했다.

그러나 국역 부담자로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었던 평민 군역자를 비롯한 하층 직역자의 감소를 국가는 쉽게 용인하지 않았다. 〈표 6〉에서 알 수 있

듯이 하층 직역자의 비중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18세기 내내 그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 수나 비중으로 볼 때 의미 있는 감소는 19세기 중엽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수봉의 후손들이 중간층으로의 직역 상승을 꾸준히 도모했지만 쉽지 않았던 것은 그 때문이다. 수봉의 후손 대다수가 중간층 직역으로 상승한 것은 18세기 말 이후인데, 〈표 6〉은 중층의 수나 비중이 18세기 중엽 이후 늘어나기 시작하고 19세기에는 그 증가 폭이 비교적 컸음을 보여준다. 당시의 사회 변화에 수봉의 후손들도 일정하게 편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수봉의 후손들이 열망했던 귀착점인 상층 유학으로의 상승에 대해 살펴보자. 〈표 6〉은 천층의 급감 만큼이나 상층의 증가 폭도 컸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전적으로 유학의 증가에서 기인했다. 17세기 말 10%대에 머물렀던 상층의 비중은 18세기 전반 20%, 18세기 말 40% 선을 넘어섰다. 이후로도 증가는 지속되어 18세기 중엽에는 60% 선을 넘어섰으며 급기야 1867년에는 67%에 이르렀다.[19]

물론 이러한 변화가 신분의 급격한 변동이나 양반층의 급증을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호적에는 많게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호구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고, 누락된 자들은 대개 하천민이었다. 따라서 이들을 포함할 경우 상층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상층의 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18세기 중엽 이후 전체 주호의 수는 비슷하게 유지되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시기부터 부세 운영에서 총액제의 관행이 서서히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즉 총액제가 정착되어가고 일정한 호수가 유지되면서 개별 인물의 직역 파악에 대한 엄밀성이 약화되었던 것이다.

하천민의 경제력이나 의식 성장이란 일반적 조건과 더불어 이러한 부세 운영 관행이 존재했기 때문에 직역 상승이 가능했다. 그런데 18세기 중엽

이후 상층의 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수봉의 후손들은 대부분 중간층으로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뿌리가 노비로 연결되기 때문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기에는 그만큼 시간적 물리적 조건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했던 데서 기인했다. 실제 수봉의 후손들은 호적에 나타나는 주호의 2/3 정도가 유학을 칭하는 19세기 중엽 이후에야 상층 유학으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유학 전체를 양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봉의 후손 일부가 양반과 동등한 직역 명칭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는 큰 의미를 가진다. 노비였던 수봉의 후손들이 국역 부담의 주체로서 호적에 꾸준히 등장하고, 그 가운데 일부가 상층 직역을 획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사회적 성장을 추정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학이 된 수봉의 후손들은 이제 호적에서 누락되었거나 등장하더라도 아직 중층 이하의 직역에 머물렀던 이들에 비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유학이란 호칭에 걸맞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본관의 변경과 입양 수용

19세기 중엽 이후 수봉의 후손들은 유학이란 상층의 직역을 획득했다. 유학은 원래 양반층의 전유물이었지만 당시에는 유학을 칭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유학이 되었다고 해서 양반 대접을 받을 수는 없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신분 상승을 도모했던 수봉의 후손들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이때 수봉의 후손들은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다. 그것은 바로 본관의 변경이었다.

1678년 수봉이 김해라는 본관을 얻고 2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그의 후손들은 새로운 성장의 방편으로 본관 변경을 선택했다. 그 첫 시도

는 수봉의 고손자 김성종에서 시작되었다. 1825년 호적을 보면,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선조와 친척들이 세거世居했던 도산면을 떠나 신등면으로 이주하면서 본관을 안동으로 바꾸었다. 이와 동시에 그와 처의 4조는 18세기 말의 호적에서와 달리 모두 상층 직역인 학생으로 변경되었다.

김성종은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와 본관 변경을 통해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새 거주지로 택한 곳은 단성현에서 양반들의 위세가 가장 강한 곳 중의 하나였던 단계촌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본관 변경만으로 안정적인 정착이나 성장을 추구하기가 어려웠다. 1831년 그가 다시 도산면으로 되돌아온 것은 그의 노력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때 김성종의 본관은 김해로 환원되었다.

하지만 본관의 변경은 도산면의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김성종의 6촌 동생 김종원에 의해 또다시 시도되었다. 그 역시 본관을 김해에서 안동으로 바꾸었고, 이는 그의 아들과 딸에게로 이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19세기 중엽 이후 호적에 등장하는 그의 친족 구성원들도 모두 본관이 안동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는 〈표 5〉에서 A3인 김종원과 A4, A5로 표시된 인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김수봉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김흥발의 직계 후손이라는 점, 19세기 중엽 이후 유학을 칭하며 호적에 등재되었다는 점 등이다. 다시 말해 수봉의 후손 가운데 주로 흥발 계열이 유학으로 직역을 상승시키면서 본관을 변경했고 호적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수봉의 후손들이 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유학을 칭하거나 본관을 바꾸는 등 사회경제적 성장을 위해 노력했던 이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19세기 호적에서는 바로 이들을 집중적으로 기재했다고 할 수 있다.

〈표 7〉 도산면 안동 김씨 남성 주호의 수와 직역, 비중(1678~1867)

	1678	1717	1732	1750	1762	1780	1831	1849	1858	1867	합계
상층	11	4	6	1	2	1	1	3	4	2	49
중층	0	1	0	0	0	0	0	2	1	1	7
하층	5	2	1	1	0	1	0	0	1	0	14
천층	0	1	0	0	1	1	0	0	0	0	7
불명						1					3
합계	16	8	7	2	3	4	1	5	6	3	80
주호 전체	282	348	390	410	412	438	449	451	452	425	
비중(%)	5.7	2.3	1.8	0.5	0.7	0.9	0.2	1.1	1.3	0.7	

* 주호 전체는 도산면의 전체 남성 주호 수를 나타내며, 비중은 이 가운데 안동 김씨 남성 주호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그런데 수봉의 후손들은 왜 하필 본관을 김해에서 안동으로 바꾸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우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김해 김씨 구성원이 이 지역에서 주로 평민층으로서 신분이 낮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신분 상승을 도모했던 수봉의 후손들은 이왕이면 권위 있는 본관에 의탁하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20] 성을 바꿀 수 없는 현실에서 본관이라도 변경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때 그들의 선택은 나름대로의 계산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도산면 안동 김씨 남성 주호의 수와 직역을 분석한 〈표 7〉을 보자. 이 표는 수봉의 후손들이 본관을 안동으로 바꾼 배경에 대한 몇 가지 실마리를 제공한다. 우선 도산면에서 안동 김씨 호수와 비중은 19세기 전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7세기 말을 정점으로 안동 김씨 호수는 계속 줄어 수봉의 후손들이 본관을 본격적으로 바꾸기 직전인 1831년에 그 수

는 단 1호, 전체 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했다.

18세기 이후 안동 김씨들은 이 지역에서 점차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봉의 후손들은 바로 이 점에 주목했다. 즉 이 지역에서 안동 김씨의 영향력이 크지 않아 본관 변경에 따른 외부의 저항도 그만큼 크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기회로 수봉의 후손들은 1849년 대거 안동 김씨로 바꾸었고, 이후 수봉과 혈연적 연관이 없는 안동 김씨는 단 1호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수봉의 후손들이 이 지역의 안동 김씨를 대표하게 된 것이다.

한편 1678년 안동 김씨는 16호나 되어 전체 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았는데, 이 가운데 11호가 양반이고 1732년에도 7호 중 6호가 상층 직역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도산면의 안동 김씨 구성원들은 원래 양반 신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8세기 중엽 이후 안동 김씨 호는 대폭 줄어들고 상층 직역자의 비중도 감소하면서, 이들의 지역 내 영향력도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중엽에 지역 내 영향력이 없으면서 동시에 뿌리가 양반으로 연결되는 성씨라는 측면 역시 수봉의 후손들에게는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이 외에 그들과 어떠한 연관성도 없지만 당시 중앙의 집권세력이 안동 김씨 세도 가문이라는 점 역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동 김씨의 사회적 위세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사실도 그들에게는 불리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초 수봉이 지역 내 구성원 수가 많고 대부분이 평민이었던 김해 김씨를 자신의 성관으로 선택했던 것과 달리, 19세 중엽 그의 후손들은 지역 내 구성원이 거의 없으면서 양반의 성씨였던 안동 김씨를 새로운 성관으로 선택했다.[21] 둘 다 사회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질적인 단계의 차이는 분명했다.

물론 누차 강조하지만, 수봉의 후손들이 직역과 본관을 바꾸었다고 해서 곧바로 지역사회에서 양반으로 대접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양반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신분 동요의 폭은 커졌지만, 전통적인 양반층의 위세는 면면히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민에 뿌리를 두었던 일부 세력이 신분제의 동요를 틈타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 노력했고, 그 지향점이 양반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통 양반층의 지위 하락과 수봉의 후손과 같은 이들의 사회적 성장 사이에 가로놓인 간격이 좁혀지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수봉의 후손들은 직역의 상승과 본관의 변경을 통해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했는데, 동시에 그들의 일부는 양반층의 문화를 모방 혹은 내면화하고자 했다. 그 흔적은 가계 계승을 위한 입양의 수용에서 확인된다.[22] 조선 전기에 입양은 여러 계층에 의해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양반층의 경우 점차 안정적인 가계 계승의 수단으로 이를 활용했다. 양반층은 처가살이의 관행을 시집살이로 바꾸고 자녀 간 균분상속을 적장자 우대상속으로 전환하면서 부계 중심의 가족질서를 확립해나갔다.[23] 이러한 질서는 입양을 통한 가계 계승으로 보완, 유지될 수 있었다.

수봉의 후손들이 거주했던 단성 지역의 경우, 유력 가문에서는 17세기에 이미 가계 계승을 위한 입양이 정착되고 있었고 18세기에는 양반층 일반으로 확산되었다. 19세기에는 비양반층의 입양 수용도 확대되면서 양자의 수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24] 이때 수봉의 후손도 입양을 시행했는데, 기록상 최초의 인물은 1831년에 양자로 기재된 김종원이다. 그의 친부는 성대이고, 양부는 성대의 형인 정대이다. 이렇게 수봉의 후손에서도 큰집의 양자로 들어가 가계를 계승하는 조선 후기 입양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

었다.

이러한 입양 관계가 후대로 지속되었는지는 종원의 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58년 호적에 등장하는 종원의 아들 재곤은 그의 할아버지를 분명하게 성대가 아닌 정대로 기재했다. 종원과 재곤의 가계는 입양에 의해 정대로 연결되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비양반층의 경우에 입양 사실이 지속적으로 전승되지 못하는 일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1750년 평민으로 양자가 되었던 변담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변담은 수봉의 아들인 홍발의 처조카이기도 했다. 그는 큰집에 양자로 들어갔지만, 양부모가 죽자 입양 관계를 곧바로 청산했다. 이는 변담의 입양이 가계 계승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평민층은 조선 후기까지 노동력 제공이나 양부모 봉양 등의 목적으로 입양을 했지만, 점차 양반층과 같이 가계 계승을 위해 입양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19세기에는 그 수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수봉의 후손들도 가계 계승을 위한 입양을 시도했던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항렬의 부계 친족을 통해 가계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관념은 조선 후기 이후 양반층의 보편적인 정서였다. 하천민으로 뿌리가 연결되는 비양반층 출신이 이러한 입양 방식을 수용한 것은 유학으로의 직역 상승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더불어 양반층의 문화를 부분적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김수봉의 가계와 같이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하천민들은 오랜 기간을 거치며 양반층과의 동질화를 꾸준하게 추구해나갔다. 입양의 수용 역시 그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물론 몇 가지의 사실을 통해 하천민이 양반이 되었다거나 당시에 양반으로 대접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

렵다. 양반은 오랫동안 이어진 배타적 기득권을 강하게 존속시키려 했고 그들의 세계에 다른 계층이 진입하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민들은 양반과의 사회적 간격을 끊임없이 좁혀나갔다. 이러한 노력은 조선 후기 내내 지속되었고, 근대 사회로 접어들어서도 중단되지 않았다. 김수봉 가계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수많은 하천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5. 맺음말

전근대 한국 사회의 신분제는 노비들의 해방으로부터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천층 예속민이었던 노비들은 소유주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하거나, 경제력을 확보하여 합법적으로 신분 상승을 도모했다. 국가에 곡식을 납부하고 명예직을 얻은 수봉은 후자에 속했다. 수봉이 노비에서 해방될 무렵인 1678년에서 1717년 사이 그가 살았던 도산면 지역의 노비 주호는 전체의 42.9%에서 27.0%로 크게 줄어들었고 1780년에는 다시 7.1%로 급락했다.

수봉은 예속민의 신분에서 벗어나면서 평민층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성씨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이미 지역에서 흔한 김해를 본관으로 삼고 있었고, 이후 역시 흔했던 김씨를 자신의 성으로 선택했다. 김해 김씨는 이 지역에서 구성원 수는 많으나 양반층에 해당하는 이가 없어서 성관 획득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로부터 그의 후손들은 성과 본관, 그리고 국가에 부담해야 할 군역을 가진 평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했다.

조선의 평민들은 분명 노비보다 자유로운 신분층이었으나, 국가의 재정

원이었던 그들은 다양한 부세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은 군역 부담이었다. 이 때문에 평민들은 가급적 가벼운 역을 맡으려 했고, 가능하다면 직역을 상승시켜 군역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수봉이 노비에서 해방된 지 약 한 세기의 시간이 지난 18세기 후반 그의 후손들은 대부분 중간층의 직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수봉의 후손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한때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상층 직역인 유학에 있었다. 19세기 중엽, 마침내 호적에 등장하는 수봉의 후손들 대다수는 유학이라는 직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들이 유학이 되었다고 해서 양반층으로 편입되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의 공식적인 호구 문서에서 전통적인 양반층과 동일한 직역을 사용하게 된 것은 분명했다. 1678년 10.6%에 불과했던 이 지역의 상층 직역자는 1780년 39.2%, 1849년 64.6%로 증가했다. 호적에서 빠진 많은 인구를 포함하면 이 비중은 크게 줄어들겠지만, 적어도 수봉의 후손들이 걸었던 길을 수많은 사람이 앞서거나 뒤따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수봉의 후손들은 공식적인 직역의 상승과 함께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성을 바꾸기 어려운 현실에서 본관을 변경했던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한미한 집안이나 계층의 인물들이 자신의 본관을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본관으로 바꾸는 일은 조선 사회에서 종종 있던 일이다. 수봉의 후손들이 선택한 새로운 본관인 안동, 즉 안동김씨는 당시 그 지역에서 구성원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지만 그 뿌리가 양반으로 연결되었고, 또한 중앙의 세도정치를 대표했던 매력적인 성관이었다.

이와 동시에 수봉의 후손들은 양반의 가족질서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조

선의 양반층은 오랜 시간을 들여 부계 중심의 가족 및 친족질서를 확립했고, 안정적인 가계 계승을 위해 입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수봉의 후손들도 노동력 확보나 노후 봉양이 아닌, 가계 계승을 위한 입양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회적인 지위의 성장과 함께 양반층의 문화를 서서히 수용해 갔던 것이다.

조선 사회의 하천민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해 저항과 모방이라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들을 속박했던 국가나 양반 지배체제의 모순이 극심해지면 하천민들은 집단적으로 저항했다. 반면에 일상적으로는 경제력 향상을 바탕으로 사회적 성장을 도모했고, 최종적으로는 양반층이 갖춘 내적·외적 조건들을 모방하고자 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모방 행위는 신분적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누구나 양반이 될 수 있었던 근대 사회로 서서히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이 그러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게 되었다. 歷

권내현

현재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선 후기사를 전공했고, 최근의 관심 주제는 호적과 가족·친족, 동아시아에서의 은의 유통 등이다. 대표 저서에 『조선후기 평안도 재정 연구』, 『*THE NORTHERN REGION OF KOREA: HISTORY, IDENTITY, AND CULTURE*』(공저),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3－조선시대』(공저) 등이 있다.
nhyun@korea.ac.kr

주

1 조선시대 신분제도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한희숙, 「양천제와 신분구조의 변동」, 『한국역사입문 2』, 풀빛, 1995; 김성우, 「사회 신분」,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상): 제3판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2008.

2 근대 이후 학력을 통한 사회적 지위 상승에 대해서는 정병욱, 「3·1운동과 학력주의의 제도화」,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대동아시아학술원, 2009 참고.

3 호적대장에 대해서는 Kwon Nae-hyun, "Digitalization of and New Research Trends in *Hojeokdaejang*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7-4,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4 참고.

4 金俊亨, 『朝鮮後期 丹城 士族層研究』, 아세아문화사, 2000, 249쪽.

5 군역을 비롯한 호적의 기재 내용과 구체적 실상에 대해서는 손병규, 『호적: 1606~1923 호구기록으로 본 조선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7 참고.

6 전근대 한국 사회에서 민들은 국가에서 정한 직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민층의 직역은 대개 군역과 연관되어 있었다.

7 조선 후기 호적에서 대체로 양반, 중인, 평민의 부인은 각각 그들의 성씨 뒤에 씨(氏), 성(姓), 소사(召史)를 붙여 구분했고, 노비층 여성은 이름만 기재했다.

8 금학은 김이란 성씨를 붙이면 金金鶴이 되지만 金이 반복되는 것을 피해 金鶴으로 했다고 추정된다. 즉 금학이가 金이라는 성씨를 얻으면서 김학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 金容晩, 『朝鮮時代 私奴婢研究』, 집문당, 1997, 352쪽.

10 平木實, 「17世紀에 있어서의 奴婢從良」, 『韓國史研究』 3, 한국사연구회, 1969, 100쪽.

11 『肅宗實錄』 권12, 7년 10월 23일; 권29, 21년 11월 2일.

12 金京蘭, 「조선 후기 無姓層의 有姓化 과정에 대한 분석-단성지역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62, 대동문화연구원, 2008, 80쪽.

13 구체적으로 김해 김, 김해 노, 김해 박, 김해 배, 김해 이, 김해 허씨가 있었다.

14 손병규, 「戶籍大帳 職役欄의 軍役 기재와 '都已上'의 통계」, 『大東文化研究』 39, 대동문화연구원, 2001.

15 송양섭, 「조선 후기 신분·직역 연구와 '직역체제'의 인식」, 『朝鮮時代史學報』 34, 조선시대사학회, 2005.

16 김수봉의 여러 후손 가운데 호적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주로 김흥발의 직계인 A가계가 기록되었으며 19세기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호적 기록이 완전하지 않은 점도 원인이겠지만 김흥발 가계가 김수봉의 후손 가운데 이 지역에서 장기 정착이나 사회적 지위 상승에 성공했던 점도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7 단성 호적대장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호적대장연구팀, 『단성 호적대장 연구』, 대동문화연구원, 2003 참고.

18 〈표 6〉은 도산면의 전체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호 남성만을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 남성 직역자의 일부분이며, 특히 노비는 주호 아래 예속인으로 기재된 경우가 많아 주호 노비 수는 더욱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엄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간의 추이에 따른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의미를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다른 직역층에서도 마찬가지다.

19 19세기 단성 지역 내 또 다른 면인 법물야면의 유학층 증가에 대해서는 심재우, 「조선 후기 단성현 법물야면 유학호의 분포와 성격」,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2001 참고.

20 본관의 변경 현상에 대해서는 김경란, 앞의 글 참고.

21 20세기 이후 이들은 실제 안동 김씨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다. 그러나 호적에 등장하는 이름과 족보에 기재된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호적 등재자 모두가 족보에 기재되지도 않았다.

22 이 지역의 입양 양상에 대해서는 권내현, 「조선 후기 입양의 시점과 범위에 대한 분석」, 『大東文化研究』 62, 대동문화연구원, 2008 참고.

23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권내현, 「가족과 친족」,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상): 제3판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2008 참고.

24 권내현, 「조선 후기 입양의 확산 추이와 수용 양상」, 『역사와 현실』 73, 한국역사연구회, 2009.

■ 양반을 향한 긴 여정 — 조선 후기 어느 하천민 가계의 성장

The Long Road to Becoming Yangban: A story about the familial promotion of a lowborn household in late Chosŏn

(pp. 269~298)

권내현 Kwon, Nae hyun

The lowborn people of the Chosŏn society strove both for resistance and imitation in order to promote their social status. As the contradiction of the *yangban*-centered ruling system intensified, they resisted coll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y tried to improve their economic power by which means they were eventually able to imitate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set for the status of the *yangban* class. With a great amount of time and effort required, the act of imitation was stimulated by the desperate motive of liberation from the fetters of social status.

Particularly, the slaves (*nobi*) from the lowborn classes would have two choices: either running away or securing economic power to achieve an advancement in status. A slave named Subong offered grain to the government and an honorary post was conferred. At this time, rising from his lowborn status, he obtained a surname, which was allowed for anyone belonging to the social status of commoner or above. Since then, his descendents were able to live as commoners who not only had a surname and clan seat, but also held themselves responsible for the military duty in public service. A hundred years after Subong was liberated from slavery in the seventeenth century, his descendents were waived from the military duty owing to another promotion up to a middle stratum of occupational service. Still, their final objective was to reach the higher occupational service of *yuhak* which had been monopolized by the *yangban* families. Finally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most of his descendents, listed in the household registers, were able to use the title of *yuhak*.

Subong's descendents had pursued ways in which to heighten simultaneously their occupational service [for the state] and their social status. Given that any change in surname was fairly difficult, the labor taken even to change their clan seat reflected their ongoing desire for a higher promotion in social status. They chose a new, attractive clan seat which was of immense authority and rooted to the *yangban* families. At this juncture, they started imitating the kinship order of the *yangban* families. Along with the promotion of social status, they came to assimilate themselves gradually to the *yangban* culture so as to narrow the social gap between the *yangban* and themselves. This climbing process continued into the modern period in which the names of Subong's descendents were added to the genealogy of a leading surname and their lineage was remembered as the descendents of a *yangban* family with great dignity.

주제어 양반(*yangban*), 하천민(lowborn class),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 성관(surname and clan seat), 저항과 모방(resistance and imitation)

투고 111215 / 심사완료 120116 / 게재결정 120119

■ 사상(捨象)의 사상화(思想化)라는 방법 — 마루야마 마사오와 조선

Maruyama Masao and the question of colonial Korea

(pp. 299~327)

권혁태 Kwon, Heok Ta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Maruyama Masao, a famous Japanese intellectual/thinker dealt with colonial/nation questions, especially colonial Korea in his investigation of the building and deconstruction of Imperial Japan

Maruyama's personal experience of colonial Korea is extensive as many of his contemporaries in Japan. He witnessed Korean massacre in Kanto Great Earthquake. In addition, he spent part of his military service in Korea's Pyungyang. His father Maruyama Kanji was a chief Editor of a newspaper pu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of Korea.

Despite such experiences, his theoretical account of colonial Korea is strangely missing, presumably because his theory of fascism fails to explain the question of colony. In other words, Maruyama's fascism can show how Japanese society was transformed into anti-democratic political system. Yet, it is hard to explain how Japan expanded itself into an imperialistic nation. For him, the most important project was to consolidate democracy, while eliminating fascist elements in postcolonial Japan, leading to 'the completion of modernity' In Maruyama's world, imperialistic expansion did not necessarily contradict the modernity. This explains the reason Maruyama kept silence on the question of colonial Korea. This research shows how his worldview and theory was constrained by eliminating the question. Ironically, Maruyama's theoretical limitation manifested itself overtly by not answering 'Chosun' (Korea) question at all.

주제어 마루야마 마사오(Maruyama Masao), 다케우치 요시미(Takeuchi Yoshimi), 내셔널리즘(Nationalism), 식민지 조선(colonial Korea), 일본 파시즘(Japanese Fascism), 전후 민주주의(Postwar-Democracy)

투고 111220 / 심사완료 120117 / 게재결정 120126